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김송이¹⁾

The effect of Human rights awareness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Song-Yi Kim¹⁾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를 갖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료는 2020년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B시에 소재한 2곳의 간호대학생 176명을 대상으로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는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종교, 해외 경험 유무, 다문화 친구 사귀 경험 유무는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 자아존중감, 다문화 수용성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었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은 조절효과를 나타냄을 입증하였다. 이는 다문화 수용성 증가를 위해 자아존중감 증가를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핵심어: 간호대학생, 인권의식, 자아존중감, 다문화 수용성, 조절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whether human rights aware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affect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to analyze whether self-esteem has a moderating effect.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176 nursing college students in two B cities from May 11 to 15, 202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ction effect, and hierarchical multi-regulation analysis using the SPSS 23.0 program. The study summarizes the following. First, the existence of volunteer work experienc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human rights awareness and self-esteem, and the existence of religion, overseas experience, and multicultural friend experienc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Second, the human rights awareness, self-esteem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were correlated with each other. Third, the human rights aware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influence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Fourth, the human rights awareness of

Received (April 14, 2020), Review Result(May 22, 2020)

Accepted(June 20, 2020), Published(June 30, 2020)

¹⁾Associate Professor, 47230, Dept. of Nursing,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Yangjeong-dong, Busanjin-gu, Busan, Korea

E-mail: gdchnurs@dit.ac.kr

ISSN: 2383-5281(Print) AJMAHS

ISSN: 2383-7268(Online) Copyright © 2020 HSST

nursing college students influence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self-esteem prove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This suggests a new approach to increasing self-esteem is needed to increas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Keywords: Nursing Students, Human rights awareness, Self-esteem,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ediating effect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한국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다양한 국적을 지닌 결혼 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재외동포, 유학생, 이민자, 이민자의 2·3세, 탈북민 등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급속한 증가로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한국에 장단기 체류 중인 외국인은 2,420,198명이었고[1], 현재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체 인구의 약 4.9%가 외국인이며[2], 앞으로 점점 더 늘어 날 추세이다.

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작업 중 부상을 당한 경우가 36.4%, 작업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도 21.1%로 높게 나타났다[3].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변화하면서 외국인 의료이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4].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의 다문화 수용력 및 다문화 대상자의 문화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특히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직접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대상자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효과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 수용성은 우리와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다문화 지향 태도이고, 우리 문화만이 옳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열린 사고이며, 다문화 사회의 구성원인 이주민들을 경쟁자가 아니라 공존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태도이다[5].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의 전문에 간호의 근본이념으로 '인간의 권리'를 존중하며, 평등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간호하는 대상자의 국적, 인종, 종교, 문화적 차이의 종류 등을 불문하고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기되어 있다[6]. 간호대학생은 예비간호사로서 다문화 대상자를 향한 차별 없는 간호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므로 다문화 수용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 요인으로는 인권의식이 있다[7,8]. 인권의식이란 인권에 대해 인식하고,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수호하려는 태도로 이는 인권판단력, 인권감수성, 인권행동의사로 구성되어 있다[9]. 인권은 다문화사회의 핵심윤리이자 토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인권과 다문화주의는 주로 거시적인 담론 수준에서 논의되어왔고, 미시적인 수준에서 인권과 다문화주의와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아[7] 다문화 사회인 현재, 인권의식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간호는 인간의 기초 권리 중의 하나인 건강권을 추구하고면서 근본적으로는 인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철학적 이념을 가지고 있다[10]. 간호대학생은 교육과정에서

부터 대상자를 직접 만나고 전문직 간호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이 타학문과 비교해 더 요구된다[11].

한편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적응, 건강한 성격발달 및 자아실현의 중요한 요소이자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인간으로 여기는가에 대한 평가 요소로[12], 본 연구에서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내면적 요인이다. Bennett & Bennett(2004)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다른 문화 및 인종을 관용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크다고 하였다[13]. 즉, 높은 자아존중감은 타인을 수용하고 편견 없이 대하는 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다문화 수용성 함양에도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14].

그리하여 본 연구는 현재 의료계를 향해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수용성 요구도에 따라 직접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수용성 증가를 위해 인권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의료계를 향한 다문화 수용성 요구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 자아존중감, 다문화 수용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 자아존중감, 다문화 수용성의 정도를 파악한다.
- 3)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 자아존중감,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를 분석한다.
- 4)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 자아존중감, 다문화 수용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 5)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이들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본 연구는 COVID-19 유행으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는 시기에 진행된 연

구로 비대면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했으며 포털사이트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B광역시에 소재한 2곳의 간호대학교에 재학 중인 1~4학년 간호대학생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19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설문조사 시 서문에 설문 안내서를 통해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동의한 사람에 한해 자발적으로 설문참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연구 중 원치 않는 경우 언제든지 거절 하고 중지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설문결과는 익명 처리되며, 개인 정보 비밀 보장을 위해 설문자료는 연구자의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다가, 연구종료 후 빠른 시간 안에 자료를 폐기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대상자 수 표본 크기는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 .05, 효과크기를 중간 (.15), 검정력($1-\beta$) .95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최소 필요 표본 수는 172명으로 결과를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0년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90부의 설문지 중 18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95.7%) 응답된 설문지 중에서 불충분한 응답 설문지 6부를 제외한 176부(92.6%)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인권의식

본 연구에서의 인권의식 개념은 국가인권위원회(2005) 에서 개발한 ‘인권현안인식척도’를 사용하였다[15]. 인권현안인식척도에서 인권침해관련인식과 차별관련 인식의 두 차원의 일부를 발췌하였다. 인권침해 관련 인식에서는 ‘교도소 수용자의 인권보장’, ‘종교재단학교의 종교의식 의무화’, ‘학교에서의 소지품 검사’, ‘사형제도폐지’, ‘집회 시위의 자유보장’, ‘학교에서의 차별의 허용’,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자유’ 등의 사안에 대해, 차별 관련 인식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무원 시험, 대학진학 등에서의 장애인 우대’, ‘출신학교 차이에 대한 인정’, ‘비정규직의 임금처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료보험혜택 부과’, ‘민간기업 직원채용의 연령제한’, ‘동성애자의 사회적 용인’, ‘공무원 시험, 대학 진학 등에서의 여성 우대’, ‘민간기업 직원 채용 시 연령제한’ 등의 사안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고자 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권현안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14]. 송인한(2010)의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766 으로 나타났으며[16],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734로 나타났다.

2.3.2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17]를 전병재(1974)가 번안하여 4점 Likert형 척도의 응답범주를[18] 5점 Likert 척도로 변경하여 사용한 신주영(2014)의 척도를 활용하였다[19].

본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채점하고, 부정적 문항은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수용·존중·가치 있는 인간 등으로 느끼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신주영(2013)의 척도 신뢰도 지수(Cronbach's α)는 .87이었으며[19],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891로 나타났다.

2.3.3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수용성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에서 개발하여 사용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20]. 하위 요인으로 '다양성'(6문항), '관계성'(6문항), '보편성'(4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2)의 연구에서는 Cronbach α =.9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α =. 931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3.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사용하였다.
- 2)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 자아존중감, 다문화 수용성의 정도는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 자아존중감,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는 t-test, ANOVA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é 검정을 사용하였다.
- 4) 연구대상자의 인권의식, 자아존중감,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5) 연구대상자의 인권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는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1], 성별은 여자가 74%, 남자가 26%로 나타났으며 종교는 무교가 64.3%, 천주교가 9.5%, 기독교가 11.9%, 불교가 9.5%, 기타가 4.8%로 나타났다. 인권관련 교육 이수 유무는 '네'가 83.3%, '아니오'가 16.7%였다.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는 '네'가 92.9%, '아니오'가 7.1%로 나타났다. 해외 경험 유무는 '네'가 71.4%, '아니오'가 28.6%로 나타났다. 다문화 관련 교육 받은 경험 유무는 '네'가 73.8%, '아니오'가 26.2%로 나타났다. 다문화 친구 사귀

경험 유무는 '네'가 40.5%, '아니오'가 59.5%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6)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male	46	26
	female	130	74
Religion	No religion	113	64.3
	Catholic	17	9.5
	Christianity	21	11.9
	Buddhism	17	9.5
	Other religions	8	4.8
Human rights education experience	Yes	147	83.3
	No	29	16.7
Volunteer experience	Yes	164	92.9
	No	12	7.1
Overseas experience	Yes	126	71.4
	No	50	28.6
Experience of completing multicultural education	Yes	130	73.8
	No	46	26.2
Experience with multicultural friends	Yes	71	40.5
	No	105	59.5

3.2 연구대상자의 인권의식, 자아존중감, 다문화 수용성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인권의식, 자아존중감, 다문화 수용성의 정도는 [표 2]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인권의식 정도는 85점 만점에 평균이 57.05±6.27점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50점 만점에 33.74±6.29점이며, 다문화 수용성의 정도는 80점 만점에 48.14±5.27점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권의식, 자아존중감, 다문화 수용성의 정도

[Table 2] Degree of Human rights awareness, Self-esteem, Multicultural acceptability

(N=176)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SD	Item Range	Item Mean±SD
Human rights awareness	17-85	57.05±6.27	1-5	3.35±0.36
Self-esteem	10-50	33.74±6.29	1-5	3.37±0.62
Multicultural acceptability	16-80	48.14±5.27	1-5	3.00±0.32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 자아존중감,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연구대상자는 종교에 따라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2.515, p=.050),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가 인권의식과(t=-2.600, p=.050), 자아존중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t=-2.267, p=.049$) 사후분석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해외 경험 유무와($t=2.296, p=.027$) 다문화 친구 사귀 경험($t=1.812, p=.047$) 다문화 수용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분석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다[표 3].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 자아존중감, 다문화 수용성의 차이

[Table 3] Deference in the Human rights awareness, Self-esteem, Multicultural acceptabil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176)					
		Human rights awareness		Self-esteem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male	3.32±0.43	-.168	3.62±0.69	.930	2.97±0.36	-.243
	female	3.35±0.36	(.867)	3.34±0.62	(.358)	3.01±0.32	(.810)
Religion	No religion	3.44±0.34		3.48±0.67		3.20±0.32	
	Catholic	3.23±0.45		3.27±0.18		2.75±0.21	
	Christianity	3.27±0.35	1.400	2.96±0.47	.790	2.78±0.21	2.515
	Buddhism	3.05±0.25	(.253)	3.27±0.67	(.539)	3.05±0.39	(.050)
	Other religions	3.17±0.58		3.30±0.84		2.71±0.13	
Human rights education experience	Yes	3.37±0.36	.744	3.38±0.59	.336	2.99±0.30	-.467
	No	3.26±0.41	(.461)	3.30±0.85	(.739)	3.06±0.46	(.643)
Volunteer experience	Yes	3.60±0.37	2.600	3.70±0.64	2.267	3.00±0.33	-.176
	No	3.32±0.14	(.050)	3.30±0.20	(.049)	3.04±0.37	(.861)
Overseas experience	Yes	3.37±0.38	.408	3.43±0.66	.912	3.07±0.31	2.296
	No	3.31±0.34	(.685)	3.23±0.52	(.367)	2.83±0.30	(.027)
Experience of completing multicultural education	Yes	3.34±0.36	-.192	3.32±0.63	-.770	3.03±0.29	.902
	No	3.37±0.40	(.849)	3.50±0.63	(.446)	2.93±0.41	(.373)
Experience with multicultural friends	Yes	3.35±0.40	.009	3.37±0.52	.022	3.21±0.33	1.812
	No	3.35±0.35	(.993)	3.37±0.70	(.982)	2.83±0.30	(.047)

3.4 연구대상자의 인권의식, 자아존중감, 다문화 수용성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인권의식은 다문화 수용성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03, p=.050$)가 나타났으며 이는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과 다문화 수용성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247, p=.049$)가 나타났으며,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r=.338, p=.029$) 이는 인권의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변수 상관관계가 .9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최대 .70이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표 4].

[표 4] 연구대상자의 인권의식, 자아존중감, 다문화 수용성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N=176)		
	Self-esteem	Multicultural acceptability
	r(p)	r(p)
Human rights awareness	.338(.029)	.303(.050)
Multicultural acceptability	.247(.049)	

3.5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인권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라는 변수가 조절작용을 하는지 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는 모두 0.1이상이었고 모든 변수에서 분산팽창계수(VIF)값은 10보다 크지 않아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식 투입순서는 조절효과 분석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과정을 거쳤으며, 1단계는 독립변수인 인권의식과 종속변수인 다문화 수용성 간의 회귀분석, 2단계는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여 자아존중감과 다문화 수용성의 회귀분석, 3단계는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 상호작용항(독립변수×조절변수)과 다문화 수용성 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분석 결과, 인권의식은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점수 전체 변량의 36.4%로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F=5.36, p<.001),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2, p=.008). 모델2에서는 총설명력이 49.4%로(F=6.421, p<.001) 모델2에 비하여 13% 증가하였으며,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수인 다문화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95, p=.032). 모델3에서는 인권의식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을 추가 입력했을 때, 총 설명력이 52.4%로(F=7.654, p<.001) 모델2에 비하여 3% 증가하였으며,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의 관계는 자아존중감에 의해 조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β=1.36, p=.009).

[표 5] 인권의식이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wareness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N=176)									
변 수	Model 1			Model 2			Model 3		
	β	t	p	β	t	p	β	t	p
인권의식	.32	4.28	.008	.18	0.61	.364	.96	0.53	.236
자아존중감				.95	3.65	.032	-.23	-1.32	.356
인권의식X자아존중감							1.36	2.64	.009
R2 (ΔR2)	.364(.326)			.494(.545)			.524(.478)		
F	5.364			6.421			7.654		
p	<.001			<.001			<.001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의 추세에 따른 외국인 환자 증가로 인해 간호대학생에게 다문화 수용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사료되어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과 관계된 변수들을 확인하고 다문화 수용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초자료가 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인권의식은 평균이 57.05 ± 6.27 점이었으며 이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로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인 53.36 ± 8.20 보다 높다[21]. 간호대학생은 예비간호사로서 타 학문에 비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이 더 요구되며 간호교육 과정을 통해 이를 양성하고 있어 일반 대학생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은 3.37 ± 0.62 점으로 이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로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인 3.63 ± 0.60 점에 비해 낮다[22].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되며 이는 각 학생의 내적인 영역으로 환경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문화 수용성은 3.00 ± 0.32 로 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로 연구한 선행연구 결과인 3.18 ± 0.43 점과 비슷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예비간호사로서 다문화 대상자에게 차별 없는 간호를 제공해야 하므로 일반대학생에 비해 높은 다문화 수용성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에게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권의식의 차이는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가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의식을 조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21].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적 소수자들과의 접촉 및 활동이 연구대상자의 인권인식에 대한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는 자아존중감에도 차이를 보였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22]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동시에 타인의 행동과 평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요소로[23], 타인에게 봉사하며 본인에 대한 평가 및 타인이 본인을 바라보는 평가가 높아져 자아존중감이 올라간다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의 경우 종교, 해외 경험 유무, 다문화 친구 사귀 경험 유무에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종교의 경우, 대학생이 대상인 김동진(2013)의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4]. 본 연구에서는 사후분석 결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무교가 다문화 수용성 점수가 가장 높아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종교의 유무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해외 경험 유무와 다문화 친구 사귀 경험 유무에 따른 다문화 수용성은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며[25], 이는 외국인과의 접촉 경험이 다문화에 대한 경계를 허무는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간호대학생의 인권의식은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김현아(2015), 박외자(2016)의 연구 결과와 같다[7,8]. 본 결과로 인해 다문화 수용성 뿐만 아니라 인권의

식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인권의식이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다문화 수용성, 문화적 역량 등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 개발 시 다문화에 관한 역량 뿐만 아니라 인권의식도 함께 다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이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 사이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냄으로써 다문화 수용성 증가를 위해 인권의식, 다문화 수용성 역량만이 아닌 자아존중감 증가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 사람은 타인을 잘 수용하며, 자기 능력과 타인의 능력을 인지하여 주위환경이나 사회관계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지닌다[23].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생각하며 자신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원만한 사회생활과 아울러 진취적인 삶을 영위하게 된다[23]. 즉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형성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을 수용하며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인식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며 주위 환경에 대해 소속감을 갖게 되며, 성취의식이 높고 책임감이 강하다[26]. 타인을 잘 수용하는 자아존중감의 속성으로 간호대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 소재의 간호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일부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대표성 있는 표본을 통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는 연구가 시도되어야 하며, 인권의식, 자아존중감, 다문화 수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간호대학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 및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의 시도를 제언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Justice. Immigration and foreign policy statistics monthly. August (2019).
- [2] Ministry of Justice. 2019 Statistical Yearbook. (2019).
http://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60&fn=temp_1567488834908100
- [3] D. H. Seol, J. H. Ko. A survey on the working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in 2017. Korea Industrial Manpower Corporation. Foreign labor force Administration Stay Support Team. (2017). 331.11(22) 1- 564.
- [4] M. J. Chae, J. I. Kim, J. H. Lee. Effects of a Multicultural Course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Competenc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5). Vol.21, No.3, pp. 373-381.
- [5] I. J. Yoon and Y. H Song. South Koreans' Perceptions of National Identity and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institute of Peace issues. (2011). Vol.23, No.1, pp. 143-192.
- [6] Korean Nursing Association. Korean Nurses Code of Ethics. (2013). <http://www.koreanurse.or.kr>
- [7] W. J. Park. The Effects of Adolescence's Inner Developmental Assets and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aster's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Busan, (2016). pp.1-105.
- [8] H. A. Kim. Effects of the ideological orientation and the sense of human rights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2015). pp. 1-99.
- [9] J. Y. Kim. (A) study on typology and influence factors of youth's human rights consciousness.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2012). pp. 1-144.
- [10] I. C. Yoo. A Study on Nursing Ethics.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2001). pp. 1-52.
- [11] S. W. Hong, J. S. Kim, H. J. Han. Nursing Students'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Influencing Factors. The Korea Contents Society. (2011). Vol. 11, No. 6, pp. 260-269.
- [12] I. S. Song. Human psychology and self-concept. Yangseowon. Seoul. (1990).
- [13] Bennett, M. J.. Developing intercultural sensitivity: An integrative approach to global and domestic diversity. In D. Landis. M. Bennett, & J. Bennett(Eds.), Handbook of intercultural training, 3rd ed. Thousand Oaks, CA:Sage. (2004). pp.147-165.
- [14] J. Y. Lee. The Effects of Self-esteem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Seoul, (2018). pp. 1-111.
- [1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General Report on the National Human Rights Survey(I). (2005).
- [16] I. H. Song., H. N. Lee., W. Lee., E. H. Jeong. Factors Associated with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Analysis of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Disability-Related Activities.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010). Vol.14, No.3, pp. 41-67.
- [17]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HJ : Penguinbooks. (1965).

- [18] B. J. Jean. A Study on Self-concept Theory. Humanities and Sciences.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of Yonsei University. (1973). Vol. 29, pp. 103-131.
- [19] J. Y. Shin. (The)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Self-Esteem, Level of Forgiveness and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 Study of Child-Family Therapy. (2015). Vol.13, pp. 55-69.
- [20] Korea Institute for Women's Policy Institute. (2012).
<https://www.kwdi.re.kr/publications/report.do?s=searchAll&w=%EB%8B%A4%EB%AC%B8%ED%99%94&p=8>
- [21] D. H. Bang. Human rights awareness and social responsi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the effect on attitudes toward persons with disabilities.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2013). pp. 1-130.
- [22] Y. K. Jo. A Study on the Influence of College Students'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self-esteem on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master's thesis, Jeju University. , Jeju, (2018). pp. 1-94.
- [23] Wylie, R. C. The Self-concept: Theory And Research on Selected Topics(rev.ed.),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79). Vol.2.
- [24] D. J. Kim.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Voluntary Work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aster's thesis, Cheongju University. , Cheongju, (2013). pp. 1-117.
- [25] T. W. Kim, H. J. Lee, Y. O. Lee, Y. Y. Jo, Notsu Takashi. A Comparative Study on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of College Students between Korea and Japan. Journal of DIASPORA Studies. (2016). Vol.10, No.2. pp. 257-290
- [26] Pelham, B. W., & Swann, W. B. From self-conceptions to self-worth: On the sources and structure of global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89). Vol.57, No 4, 672 - 680.
<https://doi.org/10.1037/0022-3514.57.4.672>